

보도해명자료 (’18. 6. 22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‘리쇼어링 무대책’ 정부…작년 4개社만 국내유턴
(’18.6.22. 문화일보)

1. 기사내용

- 미국은 ‘10~’16년간 1600여 개의 기업이, 일본은 ‘15년 중 724개 업체가, 유럽연합(EU)은 ‘16년부터 2년간 160여 개 업체가 자국으로 복귀함
- 반면, 한국의 경우 ‘13년 ‘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’ 제정 이후 6년간 50개미만의 기업이 자국으로 복귀함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- 상기 기사에서 제시한 미국, 일본, 유럽연합의 유턴기업 수는 사실과 다름
- (미국) 기사에서는 미국의 유턴기업수를 1,600여 개*로 제시하였으나, 이는 **외국인 투자기업(해외→미국)과 유턴기업(리쇼어링)**을 합한 수치로 1,600여개 전체를 유턴기업 수로 볼 수 없음
- * 미국 비영리기구인 Reshoring Initiative의 ‘New Reshoring&FDI’를 인용
- (일본) 기사에서는 ‘15년 일본으로 유턴한 기업수가 724개*라고 보도하였으나, 동 기업 수는 **해외에 진출한 일본 기업이 단순 철수한 숫자로 724개 기업이 유턴을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음**
- * 일본 경제산업성 제46회 해외 사업 활동 기본조사 개요
- (유럽연합) 기사에서 유럽연합(EU)은 ‘16년부터 2년간 유턴기업수가 160여개*라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**금융·보험업, 정보·통신업, R&D 등을 포함한 것으로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나라와 기준이 다름**

* European Reshoring Monitor의 ‘Reshoring cases’

- 한국은 미국, 일본 등 세계 다른 나라와 달리 **가장 엄격한 유턴 개념**을 가지고 있어 유턴 기업수를 다른 나라와 단순 비교하기 곤란함
- (한국) 해외사업장을 반드시 **청산·축소(50% 이상)하고**, 국내에서 사업장을 **신증설**을 하는 **경우에만** 유턴기업으로 인정함
- (미국·일본 등) **청산·축소 의무 없이** ①해외와 국내 사업장간 **단순 생산량 조정**을 하거나, ②**신설·증설** 등을 하는 경우도 모두 유턴에 포함시킴

- 우리부는 **해외진출기업의 원활한 국내복귀로 국내 일자리 창출**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턴 관련 지원제도를 개편할 계획임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송현주 과장 (044-203-4090)
해외투자과 윤제민 서기관 (044-203-4093)
해외투자과 진성익 사무관 (044-203-4091)